

온라인 쇼핑·재택근무·화상 면접... 모든게 달라졌다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배달도 비대면으로 AI 활용 급속 증가, 개인 위생의식 크게 향상

2019년 12월, 코로나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후 지난 10월 3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만 해도 4천4백만명을 넘었고, 1백1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공포의 팬데믹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에 부정접두어 언(un)을 붙인 한국어 신조어 '언택트'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첫 번째로, 언택트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다. 계산대가 없고, 인공지능(AI) 카메라 센서를 통해 고객이 어떤 상품을 샀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외식문화는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문화로 확 바뀌었다. 배달 자체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드라이브스루 플랫폼 방식도 소비자들 사이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유연 재택근무제 실시로 집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 되면서, 전국의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인 줌(Zoom)이나 시스코 웹엑스(Webex), 구글 '지스 스위트(G-Suite)와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8월 기준 온라인 쇼핑물 매출액은 지난해 8월보다 22% 증가한 14조3

천832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거래폭증이다. 상품별로는 가전. 전자 통신기기는 33%, 스포츠 레저용품 28%, 음식서비스 46%, 음식료품은 31% 증가했다.

반면에 외부 활동이 위축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51% 감소했고, 문화 및 레저스포츠 또한 56% 줄게 되었다. 이처럼 통계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은 증가하고 외부 활동이 자제되면서 소비형태가 변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언택트시대에 사람들 만남의 방식도 온라인으로 변해가고 있다. 화상통화를 이용한 만남, SNS를 활용한 만남 등 지속적으로 만남의 방식까지 변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온라인 인공지능(AI) 면접을 실시하여 AI가 면접관이 돼서 채용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언택트 면접으로 지원자의 불편함과 코로나 감염에 리스크도 최소화 하고 있다.

개인위생도 놀랍게 강화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침방울 비말로 눈이나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물론 불필요한 대화도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일반화 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길거리에 침을 뱉는 몰지각 시민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김중근 학생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지난 11월초 광주시 서구 중앙동 전원교회에서 신도들이 이격거리를 둔 채 예배를 보고 있다.

무분별 집단예배 자제...교회·사찰도 철저한 거리두기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이후 종교인들의 무분별한 집단예배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종교집단 특유의 밀집 환경과 예배 찬송 등의 행위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후로도 지난여름 사랑의 교회등 일부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앞세우며 예배를 강행, 또한차례의 폭풍감염을 불러 일으켰다.

방역당국은 종교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줄 것을 강력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향에 따라 종교시설 내에 철저한 거리유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찰 교회당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1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이상씩 띄우고 모임과 식사를 자제하며 1.5단계에서는 정규행사 인원

을 3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2단계에서는 정규행사 인원을 20%로 제한하며 1.5단계와 같이 금지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도 금지한다.

3단계가 되면 1인 영상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도 금지한다.

조철웅 학생기자

"재택근무, 불편함 더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자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중 한 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S씨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S씨는 처음 재택근무시작이 내려왔을 때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즐거운 마음은 커녕,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게 된 재택근무가 오히려 스트레스 였다고 말했다. 진행 해오던 업무의 완수에 대한 걱정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업무의 스케줄 조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불편함이 더 컸다는 것.

S씨는 메시지를 통해 부서 회의를 하니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기 어려웠으며 불시에 재택근무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도 비 인간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김태호 학생기자



장보기·공연 관람도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는 햄버거 전문점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점에서 시작돼 이젠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방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주 롯데백화점은 감염위험 없는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드라이브픽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장보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판로가 크게 위축된 전통시장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후 전화를 하면 미리

주문한 농축수산물도 차창너머로 제공받을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는 문화생활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2020 코리아뮤직 드라이브 인 페스티벌"은 차 안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하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첨단도서관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도서를 대여하고 있다.

최유비 학생기자

어느덧 7개월...일상된 온라인수업

4월 9일 교육부가 고3학생을 필두로 온라인 수업을 개시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7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가는 학생은 처음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달리 강제력이 크지 않고 겨울방학의 연장선으로 느껴져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수업의 이해나 집중도 또한 개인

의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면 수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능력이 다가올수록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 게 불안하고 선생님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듣는 게 학습효과가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수업이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자율학습을 편한 환경인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 전했다.

고희석 학생기자

직격탄 맞은 영화관 살아남기 안간힘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내내 지속되며 영화티켓 판매가 곤두박질했다. 이에 따라고 수익도 현저히 줄었고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면서 팝콘과 음료 판매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영화관들은 기존에는 '부가수익' 정도만 겨우겨워던 곳즈의 품목과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영화 외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살아남기에 안간힘이다.

극심한 매출 타격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려는 '자구책'인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급변할 소비-여가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롯데시네마는 KBO와 협약을 통해 관객들을 위해 한국 야구 포스트시즌의 전 경기를 대형 스크린과 첨단 사운드 시스템 등 최상의 관람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실감나는 환경에서 응원을 펼칠 수 있어 야구팬들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도우 학생기자